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0

빌립보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빌립보서

Philippian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4)

Χαίρετε ἐν κυρίῳ πάντοτε· πάλιν ἐρῶ, χαίρετε.

빌립보서 차례

빌립보서 서론.....	〈13제〉 ... 387
제 1 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5제〉 ... 392
제 2 장 사랑과 일치, 겸손에 관한 교훈.....	〈23제〉 ... 403
제 3 장 복음의 적에 대한 경고와 성도의 소망	〈18제〉 ... 414
제 4 장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	〈19제〉 ... 423

빌립보서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화보 자료〉 빌립보의 유적	402
제 2 장 〈본장의 요절〉	413
제 3 장 〈연구 자료〉 에피쿠레온파(Epicureans)	422
제 4 장 〈본장의 요절〉	430

빌립보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저자는 1:1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이다.
- (2) 그런데 1:1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서두가 시작되므로 본서신이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저작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3) 그러나 3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저자가 사도 바울 한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한편 본문 1:1에 나오는 '감독들', '집사들'이란 용어는 바울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 직분이기 때문에 본서신이 바울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F.C. Baur, 1792-1860; 튀빙겐 학파).
- (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할 때는 언제나 원활한 교회 교육과 봉사를 위해 교회마다 직분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은 본서신이 기록되기 오래 전부터 즉 바울이 활동하던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이다(행 14:23; 20:17; 딤후 1:5).
- (6) 또 3:2에서 4:3까지는 본서신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어투와 주제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서신이 결합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J. Weiss, 1863-1914) 이것도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주제와 어투를 변경했던 것은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편지 부분부분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의 간격을 두고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7) 뿐만 아니라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나 이그나티우스(Ignatius), 폴리갑(Poly-carp) 등도 본서신이 바울의 저서임을 인정했으며, 서신의 교훈이나 언어, 문체 등을 볼 때도 바울의 글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행 16:13)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다(1:1).
- (2)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행 16:40), 빌립보 지역은 서구(西歐)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이다. 또 루디아는 유럽 사람으로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이다.
- (3) 그리고 귀신들렸던 하나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 교회 최초의 교인들이었다(행 16:33).
- (4) 한편 빌립보 교회 최초의 사역자는 의사이자 사도행전과 복음서 기자인 누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누가가 빌립보 교회 조직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1인칭 복수인 '우리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16:13이하) 비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을 설명할 때에는 3인칭 복수인 '그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행 20:6).
- (5)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성적으로 헌신하였으며, 진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어려운 중에도 수차에 걸쳐 헌물을 보냈다(1:25, 30; 4:16; 고후 11:9).

3. **㉠** 본서신의 기록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신이 쓰여진 장소에 대해서는 가이사라, 에베소, 로마 등 세 곳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 세 곳에서 옥중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 (2) 가이사라에서는 바울이 2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다(A.D.58-60).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본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속히 풀려날 것이라고 했는데(2:24) 비해 가이사라 옥중에서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일찍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 (3) 또 본서가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는 주장이 최근에 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Guthrie). 이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른 3년 동안(A.D.54-56)에 본서를 기록했다고 보며(행19:1,17) 롬16:4;고전15:32;고후1:8;11:23에 근거하여 그가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다고 한다.
- (4) 그러나 이 견해도 역시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행19장) 바울이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다면 역시 그곳에서도 가이사라에서처럼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을 것인데 본서신에 의하면 이러한 간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 출처설의 신빙성이 희박하다.
- (5)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은 역시 바울이 로마에 처음 투옥되어 있던 기간(A.D.61-63) 동안에 본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으로서(행28:30) 가장 보편적이며 타당성을 갖는다.
- (6) 왜냐하면 본서에 나오는 '시위대'(1:13)나 '가이사라 집'(4:22) 등을 고려할 때 이 견해가 가장 자연스러우며, 또 본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생사의 문제가 걸린 재판 중에 있어서 일단 결정이 나면 더 이상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1:19-24). 뿐만 아니라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이 쓴 '마르시온의 서언'(Marcionite Prologue, A.D.170년경)에서도 본서가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4. **㉠** 본서신의 기록 연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신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1:7,13,16) 이 서신이 쓰여진 장소를 밝히게 되면 본서신의 저작 연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 (2) 즉 본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A.D.61-63) 기록한 것으로 그가 풀려날 것을 확신한 점 등을 볼 때 옥중 생활의 말기에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빌2:23,24).
- (3) 이것을 통해서 본서가 A.D.62-63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5. **㉠**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 (1) 사도 바울에 대해 각별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로하고 시중들기 위해 그 교회 교인인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모은 헌물과 함께 로마로 보냈다(2:25).
- (2)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이 들었다(2:26,30).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게 되었고 그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려 하였다(2:27).
- (3)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회복되자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 대해 글로써 감사를 표하기를 원했다(4:10,18).
- (4)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권면하고자 했으며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하려 했다(3:1-3).
- (5)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교회의 유력한 여인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게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다(4:12).
- (6) 사도 바울의 투옥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증언하여(1:12,17)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했다(1:18;2:17,18;4:4).

6. **㉠** 빌립보 시(市)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라.

- ㉠** (1) 빌립보는 에게 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크레니데스’(Krenides)였으며 이 부근에는 유명한 판게우스(Mt. Pangæus)의 금광이 있다.
- (2) 그런데 B.C.356년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Philip II, B.C.359-336)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확장, 증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칭하였다.
- (3) 그 후 여러 번의 정복 과정을 거쳐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B.C.42년 삼두 정치의 동맹자(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와 로마 공화주의자(부르터스, 카시우스) 사이에 유명한 빌립보 전쟁이 터졌다. 여기서 삼두 정치 동맹자들이 승리하고 곧 이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패퇴(敗退)시켜 로마의 실권자가 되면서 그의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켰다.
- (4) 이에 따라 빌립보의 지위가 상승하여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으며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사적 전초 기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으며, 전략상 마케도니아 지방의 제일로 꼽히는 성읍이었다(행16:12).
- (5) 또한 빌립보에는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으며 각종 철학, 종교, 미신 등이 성행하였다. 그 도시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으나 그들의 생활, 언어, 관습은 오히려 헬라적이었다. 빌립보에 거주하던 유대인은 소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다. 또 종교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참조, 행16:13;20:21).

㉡ 본서신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라.

- ㉡** (1) 빌립보 교회는 A.D.50년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다(행16장). 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신자로는 귀신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다(행16:33).
- (2)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으며, 비록 소수로 시작되었으나 헌금에 열성적이고 아름다운 봉사로 타 교회의 본이 되었다(4:15,16;고후8:1-4).
- (3)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헌신하였다. 그들은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고후8:1,2) 수차에 걸쳐 바울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헌물을 보냈다(1:25,30).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겨냥되었던 핍박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면서도 잘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 나갔다(1:7,28-30).
- (4)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통해 나타난 교회 안에서의 분열(4:2), 유대주의자들의 분쟁(3:1-3),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에 대한 비판론(2:19-24), 외부의 적에 대한 불인(1:28,29), 행위로 완전에 이르는 사상(완전주의, 3:12-14)의 발생 등이다.

8. **㉢** 본서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서술하라.

- ㉢** (1) 본서신 1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에 진보가 된 점을 말하여 그의 투옥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2장에서 바울은 서로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당부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헬, 케노시스), 즉 ‘자기를 비우심’의 원리를 이야기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부탁하고, 그

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한다.

- (3)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 보다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당부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뜻대로 하고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利益)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 (4)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 한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하라고 당부하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부탁한다. 또한 아낌없이 헌물로 헌신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문안의 인사로 끝맺고 있다.
- (5) 따라서 본서신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위로가 넘치는 서신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넘치는 권면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9. **㉠** 바울의 옥중 서신을 분류하고 그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하라.

㉠ (1) 바울의 옥중 서신은 4개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명	중심 사상	특성 및 기록 목적
에베소서	교회론	·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아시아 교회에 내재해 있는 분열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개인적인 서신 (기독교 포함)	·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격려하고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 유대주의, 완전주의 등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골로새서	기독교론	· 금욕주의, 절기와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이단과 천사 숭배 등의 거짓 철학과 주지주의적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빌레몬서	기독교인의 용서	·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를 주인에게 돌려 보내면 용서하고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울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다

10. **㉠** 본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바울의 옥중 서신들 중에서 에베소서(교회론), 골로새서(기독교론)가 공적이며 교리적인 글인 반면에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
- (2) 특히 본서신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이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편지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교리보다는 바울의 내면적인 신앙 간증과 사랑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글이다.
- (3) 또한 본서신은 바울의 깊은 신앙적 경지를 보여 주며(1:8,21;2:3;4:10-19) 한편으론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의 원리인 기독교론의 진수를 포함하고 있는(2:5-11) 교리상 중요한 서신이기도 하다.
- (4) 그리고 본서신은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본서신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볼 때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이 그 기저(基底)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뿐만 아니라 본서신은 '기쁨의 서신'으로도 불리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옥중의 사도 바울의 권고는 본서 전편을 통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1:14,18,25;2:17, 18;3:1; 4:4,10,18). 그런데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이나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누리는 기쁨은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얻는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11. **㉠** 본서신의 중심되는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은 빌립보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쓴 자연 발생적인 애정에 가득 찬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래서 본서신은 사도 바울의 기록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고 형식을 떠난 서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서신의 주제는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2) 하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맺어진 사랑이 넘치는 '교제'(헬, 코이노니아)이다. 이러한 형제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3) 두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다. 영광의 주(主)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최대의 겸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4) 세번째 주제는 '기쁨의 사상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본서신에는 '기쁨'이란 의미의 단어가 모두 16번이나 나온다. 이 글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간직한 바울이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

12. **㉠** 본서신의 대지(大旨)를 구분하라.

- ㉠** (1) 인사와 감사의 말 / 1:1-11
- ① 인사 / 1:12
- ②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 / 1:3-11
- (2) 투옥된 바울의 간증 : 더욱 전파되는 그리스도 / 1:12-30
- ①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 줌 / 1:12-18
- ②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구원에 이르게 함 / 1:19-30
- (3) 성도의 생활 태도 / 2:1-30
- ① 서로 겸손하라 / 2:1-4
- ②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 2:5-11
- ③ 겸손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 2:12-18
- ④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계획 / 2:19-30
- (4)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경고 / 3:1-21
- 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 3:1-3
- ② 바울의 모범 / 3:4-11
- ③ 완전론자에 대한 경고 / 3:12-16
- ④ 세속주의자에 대한 경고 / 3:17-21
- (5) 마지막 권면들 / 4:1-9
- ① 마음을 같이할 것 / 4:1-3
- ② 주 안에서 기뻐할 것 / 4:4-7
- ③ 기타의 미덕들 / 4:8-9
- (6) 선물에 대한 감사 / 4:10-20
- (7) 문안과 축도 / 4:21-23

13. **㉠** 본서신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4).

제 1 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단락구분 1-2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인사 / **3-8** 성도들의 헌신적인 동참에 대해 감사하는 바울 / **9-11**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다 / **12-18** 더욱더 전파되는 그리스도 / **19-26**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 / **27-30**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2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르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 아무 일에도 지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징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라.

- ㉠ (1) 바울은 본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고난에 헌물로 동참한 것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들이 사랑의 교제를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 (2) 또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에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 (3)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열성적인 헌신과 사랑의 교제가 바울의 뜨거운 애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통해 우리는 그들 사이가 참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며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연유된 참된 관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일4:7).
- (4)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교회의 참모습은 높이 솟은 교회당이나 교인 수의 많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참조, 마9:13; 요15:17).
- (5)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참조, 마5:14)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길을 돌이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5:13-15, 44,45).

2. ㉠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바울 서신들 중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곳은 본서신과 로마서(롬1:1) 디도서(딤후1:1)뿐이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종'은 모세(수1:2), 다윗(시35:27; 78:70; 89:3,10) 등의 선지자에게 적용된 존귀한 명칭이었다.
- (2)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몸과 영을 모두 그리스도께 바쳐서 그분만을 위해 봉사하는 자라는 뜻으로 종(헬, 들로스)이란 말을 사용했다.
- (3)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권위나 신분을 옹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는 강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 중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또는 사도의 권위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명을 쓸 필요가 없었다.
- (4) 즉 본서신은 바울이 사도로서가 아니라 진실한 애정을 가진 한 사람의 친구로서 기록한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물이며(고전6:20)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엡6:6).
- (6)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은 성도들에 대한 격의 없는 애정의 표시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한 자로서의 절대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단순히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20:28; 롬15:25).

3. ㉠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라(1절).

- ㉠ (1)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출신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니게(Eunice)이다(행16:1).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감화 속에서 자라났다(딤후1:5).
- (2) 그는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으며(행14:6,7) 신실하고 경건하여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말했다(딤펴전1:2,18;딤펴후1:2).

- (3) 그는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시 동행하였고(행16:1-3)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도 참여하였으며,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에도 함께 있었다. 그 후 그는 사도 바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다.
- (4)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성애적 사랑과 바울을 향한 디모데의 충성스러운 헌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형제애의 모범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된다.
- (5)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일반화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를 모범으로 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12:20;요일3:10).

4. **㉠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 (3-8절)**

- ㉠** (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5절).
- (2) 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어려운 중에도 헌물로써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 개인에 대한 사랑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7절).
- (3)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그들의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Calvin, Bengel, Vincent).
- (4)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대가 없이 물질을 받는 것이나,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을 초월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영적 성숙과 기쁨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요15:11).
- (5) 또한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이 땅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몸소 짊어지신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마8:17; 롬15:1).

5. **㉠ 빌립보 교회의 교제(交際)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5절)**

- ㉠** (1) 빌립보 교회의 교제(헬, 코이노니아)에는 다른 교회에 비해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2) 첫째, 빌립보 교인들의 교제는 복음을 촉진시키는 교제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을 구제함으로 그리스도적 사랑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고후8:1-5).
- (3) 둘째, 그들의 교제는 자발적인 교제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사랑의 교제를 가능케 하였다(고후5:14).
- (4) 셋째, 빌립보 교회의 교제는 세상과 분리되는 교제이다(고후6:14).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 즉 세속적인 생각, 목적, 말, 생활 방식으로부터 성별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약4:4;요일2:5).
- (5) 그러나 이러한 분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분리는 인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노력을 가능케 해주는 분리인 것이다(참조, 요16:7).
- (6) 넷째, 그들의 교제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교제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제까지’(5절)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참조, 계2:4).
- (7)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인내하여 타교회의 모범이 되며 사도 바울의 애정의 대상이 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개교회 교파, 교단, 개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골2:2).

6. ㉠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무엇을 뜻하는가? (6절)

- ㉠ (1)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헬, 파루시아)의 날을 의미한다. 이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날인 동시에 빛과 승리의 날이 된다(살전1:10). 반면에 불신자들, 특히 사단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 (2)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날'(1:10;2:16), '우리 주 예수의 날'(고전1:8;고후 1:14), '주의 날'(고전5:5;살전5:2;살후2:2), '그날'(살전5:4) '저 날'(살후1:10), '재림의 날'(살전2:19;3:13;4:15)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 (3) 그리고 이것은 '싸움의 끝까지', 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구원이며 해방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Calvin).
- (4) 좌우간 이날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날이다(고전15: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5:29; 롬2:7; 엡4:28; 살전5:15).

7. ㉠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7, 8절)

- ㉠ (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정신과 의지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인간의 의식과 인격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면을 표현한 것이다.
- (2) 따라서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그들은 항상 능력껏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그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이며 바울의 매임에도 동참한 자로서 참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
- (3) 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심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플랑크노이스>는 본래 복수로서 심장, 폐, 간 등의 내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사람의 감정, 애정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롬12:10).
- (5)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활의 근원이며 사랑의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거로 하여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3:8-11; 요13:35; 15:12; 살전3:12).

8. ㉠ 바울이 '매임', '변명함', '확정함' 등의 법정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 (7절)

- ㉠ (1) 여기서 매임, 변명함, 확정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각각 <데스모이스>, <아폴로기아>, <베포바이오시스>로서 각종 재판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이다(참조, 행22:1; 딤후4:16; 히6:16).
- (2)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투옥되어 재판 중에 있었으며 점점 다가오는 그의 공판(公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바울은 그 공판에서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증명하기를 원했다(참조, 20절).

- (4) 또한 이 재판은 바울 한 개인의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 대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연대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확인 작업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참조, 요15:13; 벧전1:22; 요일3:16).

9. **㉠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9-11절)**

- ㉠** (1) 첫째, 빌립보 교인들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 (2) 여기서 지식(헬, 에피그노시스)은 일반적인 도덕 원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총명(헬, 아이스데시스)은 일반적 원리를 특정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랑은 성숙한 지식과 총명을 전제로 할 때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참조, 벧후1:5-7). 또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요일4:7).
- (3) 둘째, 진실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를 기도했다. 여기서 '진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일리크리네스>는 본문과 벧후3:1에만 나오는 낱말로 '순수하고 성실한' 것을 뜻한다.
- (4)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義)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는 단순히 율법에 형식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3:9)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한다.
- (5)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다(참조, 롬2:7; 고전10:31).

10. **㉠ 본서신을 기록하던 당시 바울은 무슨 일을 당했는가? (12절)**

- ㉠** (1) 바울은 A.D.61-63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서신은 A.D.62-63년 로마 옥중 생활중에 쓰여진 것이다.
- (2) 그 외에도 바울은 A.D.58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A.D.58-60년까지 가이사라에서 옥중 생활을 했다(행24:23,27).
- (3) 또 빌립보에서도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복음을 위해 수많은 매맞음과 배고픔, 쫓겨남 등의 고통을 당했고 끝내는 A.D.67년 네로의 치하에서 두번째 투옥되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행16:19-24).
-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고난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살펴보고 바울이 보여 준 모범을 본받아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3:18, 19; 마16:24; 막8:34).

11. **㉠ 사도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미친 결과는 무엇인가? (12-14절)**

- ㉠** (1) 첫째,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시위대와 기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당시 로마에는 약 9,000여 명의 병력이 궁정 수비대로 주둔해 있었는데 이들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했다. 또 로마법은 죄수와 간수를 하나로 묶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바울을 성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접촉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엡6:20).

- (3) 둘째, 바울의 투옥이 로마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 (4) 결과적으로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축시켰다기 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다.
-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몇 십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참조, 요12:24; 롬8:28).

12. **㉠** 바울이 투옥된 후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파했는가? (15-17절)

- ㉠** (1) 바울이 투옥된 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선한 일군으로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며 다른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투옥된 바울을 괴롭힐 목적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 (2)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샅군으로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당파심을 채우고 있었다(참조, 요10:12,13).
- (3) 또한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던 교회의 늙은 교사들이었다(롬14장).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한데 비해(갈1:6-9) 이들이 가르친 교리는 바른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에 반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 (5)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시기와 분열을 보게 되는데 현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시기와 분열이 없는지 깊이 반성해 봐야 한다. 이는 시기와 분열이 복음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불건전한 경쟁심 그리고 샅군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요10:12; 롬1:29; 고전3:3).

13. **㉠**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바울은 자신의 기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뻐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다. 이는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음을 보여 준다.
- (2) 그러나 당시 바울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아 전혀 기쁨을 누릴 상태가 아니었다. 즉 그는 육체적으로는 로마 옥중에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불행한 여건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데 있었다.
- (4) 즉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사사로운 목적 달성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임을 자각한 바울은 회멸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 (5) 이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던 바울의 위대성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개인의 소욕을 채우는 데 집착하지 않고 멸사 봉공(滅私奉公)한다.
- (6) 오늘날의 성도들도 개인의 이해(利害) 관계를 넘어서 진정 추구되어야 할 가치, 즉 진리의 성취를 위해 스스로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 가야 한다.

14. **㉠** 19-26절이 보여 주는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 ㉠** (1)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20절)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고백했다.
- (2) 앞선 부분(12-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나 자신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시기가 자기에게는 별로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음을 밝힌바 있다.

- (3) 그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생사(生死) 문제조차 자기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에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존귀'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관심사였던 것이다.
- (4) 이러한 바울의 초지 일관(初志一貫)하는 신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복음 전파에 그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게 했다.
- (5) 다원화된 사회에서 혼란된 가치관에 오염된 현대인들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조차 타협과 흥정을 일삼는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 종류의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
- (6)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일의 근본 목적은 '그리스도의 존귀'를 성취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15. ㉠ 바울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는가? (19절)

- ㉠ (1) 바울은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것'과 더불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제시했다.
- (2)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이견(異見)이 많다. 혹자는 '이것'을 당시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로 이해했다. 이러한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번역본은 공동 번역인데 거기에는 '내가 지금은 간혀 있지만'이란 설명이 병기되어 있다.
- (3) 이러한 해석을 취할 때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는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구원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4) 또 다른 해석은 구원으로 이끄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고통보다는 당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란 뜻으로 보는 견해이다.
- (5) 즉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는 실존적인 경험으로서의 고통보다는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원의 근거로 보았다는 것이다.
- (6)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가지나 이어서 나오는 '안다'(헬, 오이다)라는 말이 경험을 통하여 안다는 뜻을 지닌 <기노스코>와는 다르게 초경험적이며 직관적으로 절대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 (7) 이어서 나오는 '너희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신적인 지식과 더불어 인적(人的) 도움과 신적(神的)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 (8)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지식과 빌립보 교인들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했기에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음을 장담할 수 있었다.

16. ㉠ 구원을 확신한 바울의 각오는 무엇인가? (20절)

- ㉠ (1) 그는 스스로가 이제 구원에 이른 줄 확신한 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일념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각오를 가졌다.
- (2)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행하려 했다. 이 말은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같은 외적인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한 바울은 역시 상대적인 평가로 인한 '부끄러움에서의 극복'도 성취할 수 있었다. 즉 그는 갇힌 죄수의 신분이나 유대인들의 중상 모략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나 수치보다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 (4) 뿐만 아니라 그는 '부끄러움에서의 극복'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온전히 담대함'이

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복음 전도의 성과는 이와 같은 적극성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5)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생사(生死)의 문제까지 초극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인 삶과 죽음의 문제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상대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순교자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태연히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 (6) 바울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하는 절대적인 가치에서 찾았다. 그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모든 고난을 참으며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다.
- (7)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성화(聖火)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다.

17. C 바울의 생사관(生死觀)을 설명하라(21절).

- A (1) 바울은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그것은'(헬, 가르)이라는 접속사를 앞세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2) 즉 그는 전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자신의 삶과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밝힌바 있다. 그는 그 이유로 본절에서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임을 천명했다.
 - (3) 이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이 단계를 벗어난 사람으로는 가족을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 (4)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본절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형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임을 밝혔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상과 활력이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진실로 바울에게는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 살아 계셨던 것이다(참조, 갈2:20).
 - (6)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죽음조차 유익하다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을 갖게 만들었다. 즉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삶과 통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유익하다는 것이다.
 - (7) 성도들은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같이 죽음도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알고 무조건적인 삶을 회구하는 욕구나 죽음을 회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원숙한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8. C '나는 알지 못하노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 바울의 불가지론(不可知論)에 대하여 설명하라(22절).

- A (1)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안식의 상태를 의미했다. 이런 뜻에서 그는 죽음도 자신에게는 유익하다고 했다(21절).
- (2) 반면에 본절에서는 육신으로 사는 것도 '내 일의 열매'라고 했다. 즉 육신은 인생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고 이 육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육신을 지니는 것도, 또한 죽음을 통하여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바울에게는 좋은 일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바울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 (4)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을 뿐 아니라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고(행22:3) 여러 차례의 여행을 통하여 지식을 쌓았으며 세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간 경험이 있었으나(참조, 고후12:2)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 (5) 오늘날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 (6) 선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에 합당한 대로 인간을 인도하시며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불가지(不可知)한 인간의 부족을 주의 능력으로 보충하신다(참조, 롬8:28).

19. **㉠**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설명하라(24절).

- ㉠** (1) 삶과 죽음에 있어서 바울 개인적인 면에서는 죽음이 더 좋았다. 그러나 '너희', 즉 빌립보 교인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생존해 있는 것이 더 좋다.
- (2) 이와 같은 상반되는 가치 중에서 바울은 나에게 좋은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아량을 지녔다.
- (3) 이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의 위험을 무릅쓰는 선한 목자의 심정과도 같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기 희생의 태도가 요망된다(요10:15).

20. **㉠** 바울이 본서를 쓴 목적을 살펴보자(25절).

- ㉠** (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빌립보서를 썼다.
- (2) 그는 당시 로마 옥중에 있었으나 자신의 고난보다는 오로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생활했고 이 소망이 성취될 때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 (3) 이는 당시 바울이 철저한 목양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참된 목자는 목양의 부차적인 결과인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양의 진실한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다(요10:10).

21. **㉠**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에 대해 설명하라(27절).

- ㉠** (1) 바울은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까지 수반되는 행동을 촉구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 (2) 이와 유사한 가르침은 바울에 의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주어졌다(엡4:1). 이와 같이 바울은 일관성 있게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다.
- (3)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며 그리스도에 의한 소식이다. 그러나 그 완성은 그리스도가 몸소 사셨던 그 생활이다. 성도의 생활의 최종적인 목표 역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생활이다.
- (4) 한편 본절에서 '생활하다'에 해당하는 헬리어 <폴리튜오>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다'란 의미를 지닌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으로서 적합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 (5) 그리스도인으로 향내 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

22. **㉠**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취하여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27, 28절)

- ㉠** (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희'라고 호칭하면서 개개인에게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주었다.
- (2) 바울은 그들이 '일심(一心)으로 서기를' 원했다. 여기서 '일심'은 '한 혼', 즉 '한 심령'이란 뜻을 지니는데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일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것이다. 또한 '서다'(헬, 스테코)란 말은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일사 분란하게 움직일 것을 교훈한다.

- (3) 이와 더불어 바울은 ‘한 뜻으로…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서 ‘한 뜻’은 하나의 지향점, 즉 동일한 목표를 가질 것을 의미하며 ‘협력’은 운동 경기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나 목적은 같은 것과 같이 한 목적을 위해 서로 도움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같은 가치관을 지닌 집단으로서 동일한 사대 파악과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적에 대처한다는 의지를 가지며, 서로를 고무하면서 박해에 임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3. **㉠**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본절의 ‘대적하는 자’(헬, 톤 안티케이메논)는 외부의 적으로서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 거주하던 이교도 내지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항상 기독교를 핍박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킨다(참조, 서론 **㉠** 7).
- (2)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 (3)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행위는 이미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며, 반면 굶핍 줄 모르는 용기와 인내로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해야 한다(요16:33;벘전3:14).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며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마5:11,12;롬8:37;고전15:57;고후2:14).

24. **㉠**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고난의 관계는 어떠한가? (29절)

- ㉠** (1) 바울은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잘못해서 그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고(벘전4:15),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벘전4:16).
- (3) 본절에 언급된 고난은 후자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 (4)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딤후3:12).
- (5)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며(요7:7),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엡6:12).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연단(鍊鍛)시키시며 그들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려 하신다(약1:34;벘전1:6,7).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애3:33).
- (7)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같은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참조, 히13:12-15).

25. **㉠**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30절)

- ㉠** (1)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1:12,13,16,17;행24:27).
- (2)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고 있다(행20:24).
- (3) 따라서 그가 싸우는 ‘싸움’(헬, 아고나)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 (4)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그의 행적(行蹟)에 대해 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지고 있었던 바이며, 또 본서신을 전해 준 자와 그 서신 내용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 (5) 또한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견디는 '싸움'에 동참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그들 주변에 거주하는 이교도들과 온갖 책동으로 훼방하며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다(28절,3:2).
- (6) 이상에서 언급한 싸움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계속된다. 이 싸움은 때로는 보일 수도(육적일 수도), 어떤 때는 보이지 않을 수도(영적일 수도) 있으나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계속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이 싸움에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계2:7).

화보자료

빌립보의 유적. 빌립보의 주요 도로상에 위치했던 화려한 옛 건물이 오늘날에는 잔해만을 남겨 놓고 있다.



빌립보는 '빌립의 도시' 라는 뜻이다. 이 같은 도시명은 b. c.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이 이 도시를 창건하고서 붙인 것이다. 비록 이 도시는 작았지만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기에 크나큰 번영을 누렸었다. 그러나 로마 치세하에 이 도시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변모하고 말았다. 한편 빌립보는 유럽 교회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이는 바울의 전도 결과 두아디라 성의 자주(紫紬)장사인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행16장).

제 2 장 사랑과 일치, 겸손에 관한 교훈

단락구분 1-4 사랑과 일치와 겸손에 대한 교훈 / 5-8 스스로 낮추신 그리스도의 본보기 / 9-11 그리스도의 승귀(昇貴)와 주(主)로 시인됨 / 12-13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 14-16 흠없는 생략에 대한 권면 / 17-18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바울의 신앙 / 19-24 디모데를 빌립보로 파송하려는 바울의 계획 / 25-30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다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랍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지라

27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라.

- ㉠** (1) 바울은 본장을 통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복음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2) 먼저 그는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는 데에 사랑과 하나된 마음 그리고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한다(1-4절).
- (3) 그 다음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의 모본을 보여 주셨으므로(5-11절) 성도들도 그와 같이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할 것과 아울러 모든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한다(12-16절).
- (4) 한편 그 당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은 자신의 장기화된 투옥(행28:30,31)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린 빌립보 교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그의 동역자(同役者)인 디모테를 그들에게로 파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19-24절), 병들었다가 나은 충성스러운 종 에바브로디도를 역시 그들에게 기쁨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25-30절).
- (5) 위에서 볼 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의 교제를 끊임 없이 나누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7,18절).
- (6)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은 그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한다(히3:13).

2. **㉡** 1-1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 ㉠** (1)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제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 (2) 그것들은 사랑과 일치된 마음 그리고 겸손이다(1-4절).
- (3)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의 바람직한 내적(內的) 성장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 (4) 그런데 이 같은 요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겸손이다.
- (5)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하나님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신분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에 대한 가장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 주셨음을 설명함으로써(5-11절) 그와 같은 사실을 강조한다.
- (6) 만일 성도들이 지체 의식이 없이 서로 물고 뜯으며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에 급급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유지될 수 없고 도리어 와해되기 쉽다(갈5:15).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겸손과 사랑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엡4:1-4).

3. **㉢** 성도들이 실행해야 할 교회 생활의 지침은 무엇인가? (1절)

- ㉠** (1)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실행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권면'(헬, 파라클레시스 엔 크리스트)이다.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형태나, 다른 데서 얻어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한다.
- (3) 둘째는 '사랑에...위로'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파라위티우 아가페스>는 문자적으로 '사랑의 위로'를 의미한다(KJV, comfort of love). 성도들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연약한 상태에 빠진 형제들을 위로하되 사랑으로써 행해야 한다(엡5:2).
- (4) 셋째는 '성령의...교제'(헬, 코이노니아 프뉴마토스)이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내재(內在)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롬8:9; 고전3: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役事)에 순종하여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 (5) 넷째는 '공홀이나 자비'이다. 여기서 '공홀'로 번역된 헬라이어 <스플랑크나>는 원래 심

장, 내장, 마음 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공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깊은 사랑임을 나타낸다. 한편 '자비'는 헬라어로 <오이크틸모이>인데 이는 특별한 동정심, 즉 연약한 자에 대한 동정을 뜻한다. 성도들은 약한 자나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볼 때에는 공홀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 (6) 이상에서 언급된 네 가지 요소들은 인간 상호간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들이다. 성도들은 이 원리들을 교회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이웃과의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

4. ㉠ 성도들간의 교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2-4절)

- ㉠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엡1:23)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불일치와 갈등, 대립 속에 분쟁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
- (2)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성숙한 신앙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쟁과 불화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4:2)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면하였다(2절).
- (3)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3,4절). 겸손하지 않고서는 한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갈등만이 자리잡게 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간의 교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덕목은 겸손이다.
- (5)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을 품게 되며,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 (6) 초대 교회가 태동(胎動)한 것도 먼저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행1:14).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행2:42-47).
- (7) 따라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한다(참조, 마23:12).

5. ㉠ 5-11절에 기록된 바울의 기독교론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이 부분에 기록된 바울의 기독교론은 일명 '케노시스'('자기를 비우심')론이라고 일컬어 지는바, 기독교론이 그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의 그것보다 더 논리가 정연하다(참조, 골1:15-29). 이제 이 부분에 서술된 기독교론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그리스도는 성육신(成肉身)하시기 전 곧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요1:1, 2,14)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6,7절; 요1:14).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적 속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참조, 요11:25; 14:6).
- (3)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당신의 신성(神性)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 것이었다.
- (4) 이와 같이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기꺼이 순종하셨다(8절; 마26:39,42).
- (5)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復活)하시고(마28:16)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昇天)하심으로(행1:39)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마16:19; 롬8:34).
- (6) 이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主)로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9-11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마28:20).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이다(요14:16-23).

(7) 이상과 같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굳게 잡아야 할 진리이며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행1:8).

6. **㉠** 그리스도 예수께서 '근본(根本)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바울은 본절에서 겸손의 참모습을 알려 주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 (2)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 곧 영원 전부터 이미 스스로 계셨던(출3:14) 분임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의 '근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파르콘>이 '본래 생존하고 있는'이란 뜻을 지녔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 (3)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 '본체'로 번역된 헬라어 <몰페>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본질적인 형태나 형상 또는 형체를 뜻한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다.
- (4)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떨어지신 성자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한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요10:30).

7.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同等)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라 (6절).

- ㉠** (1)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 (2)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영광 등을 나타내실 수 있는 자리를 고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롬5:8)에 따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이다(참조, 롬3:23-26).
- (4)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된 위치를 고수하지 않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신성)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人性)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능력 등을 나타내실 수 있었다.
- (5)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참조, 요3:3) 그 자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 '부활'과 '생명' 등으로 말씀하신 사실에서 입증된다(요11:25;14:6).
- (6)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고수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겸손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마11:29;요3:16).
- (7)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양도(讓渡)할 줄 알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몸소 겸손과 사랑의 모본을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야 한다(엡4:15).

8. **㉠** 그리스도께서는 왜 사람이 되셨는가? (7, 8절)

- ㉠** (1)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하(卑下)시켜 사람이 되셨다. 7절에 '형체'로 번역된 헬라어 <몰페>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형상을 의미한다(참조, ㉠5).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을 가리킨다. 즉 그리스도는 겉으로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분이 아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는 참하나님이시요 참사람이셨다.

- (2)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예표한(롬5:14)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전 15:45). 여기서 첫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임받은 자이다(창1:26,27;2:15). 그러나 이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롬5:12,15,17,18).
- (3)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아담이 죄지으므로 그 안에서 한가지로 타락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써 구원하셨다(롬5:16, 17).
- (4) 한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심중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예정(豫定)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시40:78;히10:5-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미리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벧전1:20) 때가 되매 보내셨던 것이다(갈4:4).
- (5)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즉 성도들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1:12,13;갈4:4-6),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게 되었다(롬8:29).
- (6) 따라서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사람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요일3:1-3).

9. ㉠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뛰어난 이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하(卑下)시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스스로 복종하시자, 하나님은 그를 부활, 승천케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 (2)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어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만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모든 정사(政事)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엡1:12;히2:9).
- (3)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변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는 그분이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엡1:22;벧전3:22).
- (4) 그러나 본질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이를 ‘예수’라 하고(De Wette),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Vincent).
- (5)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이 11절에 나오는 ‘주’(헬, 큐리오스)를 가리킨다고 보는데(Müller, Weiss)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참조, 행2:36;5:31;고전8:6).
- (6)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있어서 단순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이시다(계2:20,21).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참조, 요20:28;롬10:9,10).

10. ㉠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들은 누구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

- (2)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천사들과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다.
- (3) 한편 본질의 ‘하늘에’(헬, 에푸라니온)와 ‘땅에’(헬, 에피게이온) 그리고 ‘땅 아래’(헬, 카타코도니온)에 해당하는 헬라이어들은 모두 남성으로도, 중성으로도 취급될 수 있다. 만일 이 헬라이어 단어들을 남성으로 본다면 그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대상은 인격체로서의 피조물이 된다. 그러나 중성으로 본다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대상은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모든 존재가 된다.
- (4) 그러나 본질의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와 11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는 행위’로 보아 그 헬라이어 단어들은 중성이 아니라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존재들은 무생물이라기 보다는 인격체로서의 피조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참조, 롬8:18-25; 계5:13).
- (5)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된 자녀로서 보이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과 보이지 않는 영계(靈界)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토록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참조, 계19:1).

11. ㉠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당신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신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한다.
- (3) 실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으며(요 17:5,22,24) 이 땅에 계시실 동안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사40:5). 즉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요17:4). 특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요13:31,32).
- (4)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Calvin).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 (5) 따라서 피조물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론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요20:28; 행2:36).

12. ㉠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생(重生)하도록 힘쓰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 (2)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두려고 떨림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요1:12,13). 더군다나 본질에서 바울이 말한 대상은 빌립보 성도들, 즉 이미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한 말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로 이르라는 뜻은 아니다.

- (3) 오히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숙된 삶 곧 성화(聖化)의 생활을 하라는 권면이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 구원받기만 하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미숙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던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죄악에서 건짐 받은 후의 생활이 자신의 옛 생활과는 달리 좀더 성화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단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선악을 분별(分辨)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엡4:13-15; 히5:12-6:2).

13. ㉠ 성도들 안에 내재(內在)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라(13절).

- ㉠ (1)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생활을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한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 안에 내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후부터이다(요14:16-23).
- (3) 이로써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영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 (4)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주행(走行)시키지 않고 자신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해야 한다(참조, 골1:29).
- (5) 이러한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삶이다. 바로 이런 식의 삶이야말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참조, 갈2:20).

14. ㉠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 16절)

- ㉠ (1)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살 때 마땅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1:27).
- (2)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첫번째 사항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즉 왜곡되고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라'는 것이다(참조, 마5:14-16).
- (3)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다(요1:5; 3:19).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갈 길을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요8:14). 따라서 이들에게는 갈 방향을 비추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제시해 줄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
- (4) 그런데 성도들은 바로 이들에게 영적인 빛이 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8:12), 성도들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어두움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물론 성도들이 소유한 이 빛은 스스로 내뿜는 발광체로서가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즉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선행과 바름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은 것들이어야 한다.
- (5)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번째로 말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이다(16절).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흠 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 말씀의 참됨을 나타내라고 권면한다.

(6) 이상과 같이 행위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것은 초대 교회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여된 임무일 뿐만 아니라 오늘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명(使命)이다.

15. ㉠ 바울이 자신을 관제(灌祭)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7절)

- ㉠ (1) 본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관제로 드릴 지라도 기뻐하리라고 고백한다.
- (2) 여기에서 '관제'(히, 나사크)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한다(민15:1-10).
- (3) 따라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의미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리라는 것이다.
- (4)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열성을 보여 준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 (5)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된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이다(요10:11).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은 자신 보다는 양들을, 자기의 목숨보다는 교회의 생명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참조, 행20:24; 고후12:15).

16. ㉠ 동역자적(同役者的)인 측면에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설명하라(19절).

- ㉠ (1)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 온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25,30절). 그러나 그때에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 (2) 따라서 바울은 주의 신실한 일꾼 된 디모테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여 그로 하여금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도록 배려하였다.
- (3) 바울이 이와 같이 그의 동역자를 어느 곳에 보내거나 남기는 것은 그의 복음 사역(福音事役)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일로서(고후8:6,17,22; 딤편1:3; 딤편1:5),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케 하기 위해서였다.
- (4)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사역 활동 범위가 넓었다는 점(행16:9,10; 20:4; 롬15:19,23)과 아울러 그에게 복음을 위한 동역 의식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 (5) 실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수차 방문하며(행15:36,41; 18:23; 고후13:1) 그 교회들의 평화와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힘썼다(고후11:28).
- (6)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여러 환경에 얽매이거나 바쁠 때 뿐만 아니라, 늘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의 동역자들을 어떤 곳에 보내거나 남기곤 하였다.
- (7)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일을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선한다.
- (8)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성질상 개인적으로 행해지도록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눅10:1; 행13:2), 또한 그 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9) 따라서 현대에 사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려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같이하려는 동역자적인 선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동역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단과 교회와 성도 개개인들이 분열하며 고통을 당한다.

17. ㉠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디모테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20-22절)

- ㉠ (1) 바울은 디모테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심한 후에 디모테가 하나님의 일에 임할 때 보이는 태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2) 즉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였으며, 그 자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求)했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디모데의 성실성을 잘 반영해 준다. 20절의 ‘뜻을 같이하여’란 헬라어로 <이소프뤼콘>인데 이는 ‘같은 마음의 사람’을 뜻한다(KJV, man like-minded).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마음을 같이한 성실한 일군이었음을 나타낸다.
- (4) 또한 이 사실은 복음을 위한 디모데의 열성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 예수의 일에 전념한 자였다(참조, 딤후2:34).
-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디모데의 인내를 잘 보여 준다. 디모데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딤후4:7)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참았던(딤후2:12) 바울처럼, 믿음에 있어서 연단(鍊鍛)을 받은 자였다(참조, 롬5:34).
- (6)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동일한 일군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군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헌신하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도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여야 한다(참조, 행6:4).
18. **㉠**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1절)
- ㉠** (1) 바울이 로마의 옥중(獄中)에 갇혀 있는 기간이 장기화되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실망과 좌절과 회의(懷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참조, 서론 ㉠ 7).
- (2)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를 대신하여 그들을 진리 가운데 견고케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려 마음먹었다(참조, 19절).
- (3) 그러나 당시 디모데를 제외한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목회자적인 도움을 베풀어 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지 않았다.
- (4) 오히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돕기는커녕, 그를 시기하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만 더하게 하였다(1:15-17).
- (5) 여기서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 (6) 이것은 주(主)의 일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변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 (7)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행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다. 또한 주의 일을 한다 해도 남보다 더 적은 십자가, 더 가벼운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주의 내지는 자신의 사명(使命)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퇴보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축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자.
19. **㉠**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가? (23, 24절)
- ㉠** (1)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로마의 옥중에 갇힌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석방될 것을 확신했다(24절).

- (2) 따라서 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즉시로 파송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법적인 소송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 주고자 한 것이다.
- (3)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마지막 법적 판결에서 그가 실형(實刑)을 언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
- (4)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감금되어 있던 기간에 기록한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증거는 그 당시 바울이 그레테,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서 자유로운 전도 활동을 했다는 석방론을 지지해 준다(참조, 1:25; 딤후4:16,17).
- (5) 이상에서 볼 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는 확증을 얻었을 때가 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6) 한편 바울이 이와 같이 때를 기다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 한 것은 자신이 곧 감옥에서 풀려 난다는 소식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
- (7)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모든 주의 종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귀감이다(참조, 히6:10).

20. ㉠ 로마의 옥중에서 석방되리라는 바울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24절)

- ㉠ (1)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삶과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다(1:20,21).
- (2) 이런 생각은 바울의 로마 투옥 기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는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직무를 계속 하여 수행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에게 사형이 선고된다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1:23).
- (3)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고 곧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4)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주 안에서' 되어진 것이었다. 즉 그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주 안에서'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망(展望)하고 있었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가짐은 그들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고무(鼓舞)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의 뜻과 일치해야 하며 주의 뜻에 속해야 한다(참조, 4:4; 고전1:31; 갈5:10; 엡4:17; 6:1).

21. ㉠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25절)

- ㉠ (1) '거룩', '찬양', '경배'라는 뜻을 지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신약에서 단지 본서신에만 언급되는 인물이다.
- (2) 이제 바울이 본절에서 그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그는 바울과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눈 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울의 '형제'(헬, 아델포스)였다.
- (3) 둘째,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헬, 쉬네르곤) 동참한 자였다.
- (4) 셋째, 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軍士) 된 자'(헬, 쉬스트라티오테스)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굳건히 살며, 특히 복음을 전파할 때 수반되었던 위험을 피하지 아니한 자였다(참조, 딤후2:3,4).
- (5) 넷째,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헬, 아포스톨로스)로서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하여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여기서 '돕는 자'에 해당하는 헬리어 <레이투르곤>은

본절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에 5회 나오는데(롬13:6;15:16;히1:7;8:2), 이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뜻한다(RSV, minister).

- (6) 이러한 사실은 에바브로디도의 회생적인 봉사 행위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거룩한 봉사였음을 나타낸다(4:18).
- (7) 오늘날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적인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된다.

22. **㉠**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26-28절)

- ㉠** (1)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그를 시종들기 위해 자기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모은 헌물과 함께 로마로 보냈다(25절;4:18).
- (2)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중병이 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30절).
- (3)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고 또 바울은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가 염려한다는 소식을 알고 걱정하게 되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낮게 하셨다(27절).
- (5) 그리하여 바울은 본서신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 (6)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 자신은 물론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 대신 기쁨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7) 이상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려는 참목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교회의 근심스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마11:28).

23. **㉠**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9, 30절)

- ㉠** (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보여 주어야 할 자세로써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라고 권고한다(29절).
- (2)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에바브로디도가 따뜻한 영접을 받아야 할 첫번째 이유는 그가 옥중에 있는 바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일에 종사했으며, 실제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다(30절).
- (3) 두번째 이유는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하여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다(4:18).
- (4) 우리는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모든 회생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15:30;엡6:19;살전5:25;살후3:12;히13:18).

본장의 요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제 3 장 복음의 적에 대한 경고와 성도의 소망

단락구분 1-3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 4-6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이유 / 7-9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바울 / 10-11 부활에 참여하려는 바울의 신앙 / 12-16 쫓대를 향한 전진 / 17-19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 / 20-21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복된 소망

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5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배나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필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뉘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라.

- ㉠ (1) 전장(前章)에서 사랑과 일치 그리고 겸손에 대해 교훈한 바울은 이제 본장(本章)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지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 (2) 먼저 바울은 율법주의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혼란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1-3절) 그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분토(糞土)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밝힌다(4-9절).

- (3) 그 다음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9-16절).
- (4) 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유 사상가들의 결국은 멸망임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한다(17-21절).

2. **㉠** 바울이 본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첫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다.
- (2) 이와 같이 '기뻐하라'는 권면은 본서신의 2:18과 4:4에도 나온다.
- (3)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는 일이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 (4)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매여 있으며 또한 본서신을 읽는 빌립보 성도들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참조, 서론 **㉠**7).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주'(主)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20,21).
- (6)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고난과 슬픔을 삼켜 버리는 거룩하고 놀라운 기쁨이다(참조, 사35:10).
- (7)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시5:11,12).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마5:11,12; 벧전4:12,13).

3. **㉠** '같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 (2) 첫째, '같은 말'은 본절의 앞 부분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Alford, Weiss, Moffatt). 그러나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절 뒷 부분에 나오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는 표현이 기뻐하라는 권면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 둘째, '같은 말'은 3장과 4장에 암시된 교회 안의 불일치에 대한 경고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J.B.Lightfoot). 우리는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본절의 '같은 말'을 교회의 불일치에 대한 경고로 볼 경우 본절의 내용과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2절 이하의 내용이 그 주제에 있어서 상치(相馳)될 뿐만 아니라 본서신의 저자인 바울이 어떤 방해에 의해 갑자기 주제를 변경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4) 셋째, 본절의 '같은 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Zahn, Meyer, E.F.Scott, Benoit, Vincent).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주장은 신빙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위험스런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는 내용이 본절에 나오고 있으며, 또 이 내용은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2절 이하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이 마지막 견해에 따를 때 본절 말씀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고 경계하는 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서론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같은 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가리킨다(참조, **㉠**3). 그리고 본절에 '수고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오크네론>은 '성가신', '지루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RSV, NIV,

irksome).

- (2)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성(害惡性)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강조한바 있다(롬16:17,18;갈2:4;6:11-13;골2:8).
- (3) 이제 바울은 본서신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며 성도들이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한다(2-9절;1:28).
- (4)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난 사악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견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는 자신의 노력이 아무리 되풀이된다 할지라도 결코 '지루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절에서 밝히고 있다.
- (5)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 주신 양들을 악한 세력과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려는 참목자 상(相)을 발견할 수 있다.
- (6)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청지기는 결코 그 양들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지기는 그 양들이 진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보살피어 주는 일을 지루하거나 성가신 일로 여길 수 없다(참조, 요10:11-15).

5. ㉠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損割禮黨)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당시 '개들'(헬, 쿠나스)은 애완 동물이 아니라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길손에게 덤벼드는 사나우며 악독하고 집이 없는 동물이었다(JB Lightfoot).
- (2) 개의 이러한 불결함과 파렴치함 때문에 성경에 이 용어가 사용될 때 언제나 그것은 치욕과 경멸의 대상을 질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참조, 신23:18;삼상17:43; 24:14;잠26:11;사56:10,11).
- (3) 특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언급할 때 '개'라는 말을 사용하였고(마7:6), 바울 또한 본절에서 그릇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
- (4) 한편 '행악하는 자들'은 헬리어로 <투스 카쿠스 에르가타스>인데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악한 일꾼들'이다(RSV, the evil workers).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보다는 율법의 규례들을 이행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악착스런 집념을 나타낸 표현이다.
- (5) 또한 '손할례당'은 헬리어로 <텐 카타토멘>인데 이는 '절단한 자'를 뜻한다(NIV, mutilators of the flesh).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풍자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다(참조, 갈5:12).
- (6) 위에서 볼 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은 모두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 준수를 고수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7) 우리는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거나 왜곡(歪曲)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며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롬16:17,18).

6. ㉠ '진정한 할례당'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3절)

- ㉠ (1) '진정한 할례당'이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며 율법의 준수를 고집하는 '손할례당'(2절)과는 달리,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한다(참조, 롬2:25-29;골2:11).
- (2)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 (3) 첫째, 이들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인간의 전통이나 형식으로 봉사하지 않는다(갈5:25).
- (4) 둘째, 이들 할례당은 개인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적(功績)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갈6:14).

- (5) 세째, 이들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롬3:23).
- (6)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소망과 자랑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갈6:4).
- (7) 만일 자신이 아직도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외형적인 율법에 얽매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이다(고후13:5).

7. **㉠**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4-6절)

- ㉠** (1)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과거에 매우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행22:3,4).
- (2) 첫째,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롬11:1;고후11:22). 이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가 후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을 나타낸다(참조, 창17:2;레12:3).
 - (3) 둘째,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다. 이것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Tarsus)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언어와 습관과 생활 방식을 지닌 철저한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한다(참조, 행21:40;22:2).
 - (4) 세째, 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크게 존중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유대교 중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의 일원(一員)이었다(참조, 갈1:14).
 - (5) 네째,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곧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殘害)하였다(갈1:13). 즉 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으며, 또 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고(행26:10)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들의 옷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행22:20) 성도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였으며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다(행26:11).
 - (6) 다섯째, 그는 '율법의 의(義)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6절). 즉 그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를 따르는 데에 매우 신중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무도 그를 책잡을 수 없었다.
 - (7) 이상과 같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한 것은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으나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현시점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나타내려 하였다(7,8절). 나아가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였다(9절).
 - (8) 성도들은 자신이 아직도 종족이나 혈통 또는 과거의 업적이나 신분 등의 노예가 되어 그것들을 남들 앞에 내세우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 성도들은 그 모든 육체적인 요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선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분토로 여길 수도 있어야 한다(참조, 마16:14).

8. **㉠** 7-9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 ㉠** (1)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害)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다.
- (2)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고상(高尚)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참조, 요6:68;고전1:18-25).

- (3) 아울러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밝힌다(갈2:16).
- (4)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소유와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참조, 눅9:25).

9. **㉠**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이 말씀은 8절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을 통해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
- (3) 그런데 이 체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한다. 믿는 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유형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게 된다(골1:24).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1:29).
- (4) 그렇다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5) 그것은 믿는 자가 자신의 옛 생활을 장사(葬事)지내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된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롬6:4-11).
- (6)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험의 연속이 바로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이며 이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이다(21절; 롬8:29; 고후 3:18).

10. **㉠** 11절에 기술된 '부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 ㉠** (1)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부활 곧 첫째 부활이 있는 다음, 그 나머지 사람들 곧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고 선언한다(단12:2; 요5:28,29; 행24:15; 계20:4-14).
- (2) 그러나 본절의 '부활'(헬, ΰψαναστασις)은 그리스도를 주(主)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 곧 첫째 부활을 가리킨다.
- (3)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한편 어떤 주석가들은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S.L.Johnson).
- (5) 우리는 비록 바울의 그 같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가 살 동안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며 내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아야 한다(참조, 마25:1-13).

11. **㉠**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12, 13절)

- ㉠** (1)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9절) 회심(回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 (2)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열망하던 완전함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한다(12절).
- (3)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본서신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주장하는 유대교인들을 반대하여 이미 받은 영적 은사(恩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 (4) 즉 그들은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양 생각하며 일종의 완전주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 (5) 그러나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말함으로써(13절) 그와 같은 완전주의적인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6) 성도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집착하여 자기의 신앙이 정체(停滯)되거나 퇴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달성했다는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될 것이다.
- (7)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골3:1-3).

12. ㉠ 바울은 그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14절)

- ㉠ (1)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성행하던 달리기 경기를 비유로 들면서 자기 자신을 상(賞)을 얻으려고 결승점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경주자로 나타내고 있다.
- (2) 특히 본질의 '뿔대를 향하여'와 '쫓아가노라'는 현재 트랙(track) 위를 달리고 있는 경주자가 경주 뒤에 있을 상을 염두에 두고 결승점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 (3) 또한 본질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란 표현은 심판관이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명하는 장면을 생각해 한다.
- (4) 크리스찬은 바울이 이해한 바와 같이 운동 선수와 다를 바 없다. 운동 선수는 목표 지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중도 하락하거나 기권하면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생(生)을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앞만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딤후4:7,8).

13. ㉠ '온전히 이룬 자'는 누구이며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한 바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15절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죄가 없는 혹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RSV, mature) 성도들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믿음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성도들이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신 칭의(以信稱義) 등과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적 진리들과 교리들을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히5:14;6:2).
- (3)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은 기본적인 교리와 진리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이나 그밖의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갖지 못할 때가 많다.
- (4) 또한 이들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더 이상 이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얻은 영예에 만족하여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
- (5) 이제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그 같은 단점을 파악하고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권고한다(16절).
- (6) 즉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히6:11,12).

14. ㉠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행실을 본(本)받으라고 종용(慫恿)하고 있다.
- (2)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고 권면한 적이 있다.

- (3)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이 결코 자기를 추켜 세우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4)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 복음을 인하여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고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8절;2:17).
- (5) 뿐만 아니라 본절에서 바울은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헬, 헤마스)는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同役者)인 디모데(2:19-22)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 바울을 섬긴 에바브로디도(2:25)를 가리킨다.
- (6)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며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모범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영광과 은혜를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한다(참조, 4:9; 살후3:7; 딤후1:13).

15. ㉠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8절)

- ㉠ (1) 몇몇 주석가들은 이는 2절에 언급된 유대주의자들로서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Lenski, Müller, Barth).
- (2)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는 도덕률 폐기론자(道德律廢棄論者)들로서 죄 사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여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JB Lightfoot, Kennedy, Beare).
- (3) 여기서 우리는 본절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후자(後者) 곧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그 이유는 본절의 바로 뒤에 이르러 19절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한편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 (6) 첫째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자유(갈5:1)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자신의 욕욕을 만족시키는 무절제한 삶을 산다.
- (7)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은혜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죄도 사(赦)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킨다.
- (8) 이상과 같이 두 부류의 도덕 폐기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 (9)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아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敵)이요, 독(毒)이 될 수 있다(갈5:9).
- (10)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일 그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교회 안에 그러한 사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참조, 갈5:16-18; 벰전2:16).

16. ㉠ 도덕 폐기론자들의 특징과 그 결말은 무엇인가? (19절)

- ㉠ (1) 바울은 도덕 폐기론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2) 첫째, ‘저희의 신(神)은 배’라고 말한다. 이는 특히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난봉군들에게 잘 사용되는 표현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단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참조, 롬16:18; 고전6:13; 유1:11).
- (3) 둘째,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한다. 이는 극한 방종으로 인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서슴지 않고 즐기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특징을 잘 규정짓고 있다(엡5:12).
- (4) 셋째,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한다. 이는 저들이 ‘하늘 일’(요3:12)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 (5)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결말은 ‘멸망’이다. 여기서 ‘멸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플레이아>는 ‘구원’이란 뜻을 지닌 헬라어 <소테리아>의 반대어로서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Living Bible, eternal loss).
- (6) 감각적인 쾌락만을 탐닉(耽溺)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의 낙(樂)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계21:8; 22:15).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롬 8:5-8).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마6:13).

7. ㉠ 성도의 진정한 시민권(市民權)은 어디에 있는가? (20절)

- ㉠ (1) 참된 성도의 근본적인 연고지(緣故地)는 ‘하늘’(헬, 우라노스)에 있다.
- (2) 이것은 당시 빌립보 시(市)가 비록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것과 같다.
- (3) 즉 성도는 상상할 수도 없이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11:10)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4:26)에 속해 있으며, 이 땅에서는 다만 ‘외국인과 나그네’(히11:13; 벧전2:11)에 불과한 것이다.
- (4)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와 달리 성도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1:27).

18.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21절)

- ㉠ (1) 본절에서 우리의 현재 몸은 ‘낫은 몸’으로 묘사된다.
- (2) 여기서 ‘낫은 몸’(헬, 토 소마 테스 타페이노세오스)은 죄짓기 쉬운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을 강조한다.
- (3)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은 그 자체가 연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늘 주의해서 보살펴야 한다.
-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몸은 변화된다. 즉 죽은 성도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 있는 성도는 들려 올라감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 (5) 여기서 ‘영광의 몸’(헬, 토 소마티 테스 독세스)이란 ‘썩지 아니할 몸’이요 ‘신령한 몸’이다(고전15:42-44).

- (6)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役事)가 만물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꿰어 엮드리게 하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2:10)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7)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장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아울러 우리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살전4:13-18).
- (8) 아울러 우리들은 거룩한 행실(行實)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벧후3:10-13).

연구자료

에피쿠레온파 (Epicureans)

바울 당시 헬라인들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지식(철학)으로 환영받았던 것 중의 하나는 에피쿠레온 철학이었다(참조, 행17:18).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을 뿐 그 외의 것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참조, 8절). 물론 이 같은 점은 에피쿠레온파의 학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 이제 에피쿠레온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에피쿠레온파는 B. C. 300년경 에피쿠르스(Epicurus, B. C. 341-270)가 아테네(Athens)에 세운 학파이다. 그의 주된 가르침은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에피쿠르스가 말하는 즐거움이 육체적 쾌락과 방종, 비천한 자기 탐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심적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은 곧 외적으로 어떠한 고통이나 빈곤, 불행, 공포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정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에피쿠르스의 사상이었다. 그런데 에피쿠레온파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신이 행악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믿는 신앙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배격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신이 존재하기는 하되 인간 세상과는 아무런 연관을 맺지 않은 채 오직 천상 세계에서 신들끼리 유유 자적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관해서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죽을 때엔 영혼마저도 육체와 함께 원자(原子)로 분해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에피쿠레온파의 가르침은 얼마나 허구적인가?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이 세상 종말에 선악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임을 확신한다(전8:12, 13).

제 4 장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

담당구분 1 주 안에 서라 / 2 마음을 같이하라 / 3 서로 도우라 / 4 주 안에서 기뻐하라 / 5 관용(寬容)하라 / 6-7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 8-9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 10-13 참된 만족의 비결 / 14-18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감사 / 19-20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 21-23 마지막 인사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간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걸쳐 전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권면하였다.
- (2) 이제 본장(本章)에서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생활에 대해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

- (3) 즉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불화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이 된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고(1-3절), 그 다음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는 권면을 한 후(4-7절), 참된 성도의 여러 가지 미덕(美德)을 열거한다(8,9절).
- (4) 한편 본장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 준 사실에 대해 바울이 감사하는 중요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10-20절).
- (5) 이 기록은 바울이 단순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自足)할 줄 아는 바울의 신앙 간증(11-13절)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신이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임을 특징지어 준다.

2. ㉠ 본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행한 첫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코>는 ‘진실되게 서다’ 혹은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Living Bible, stay true) 병사가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게 초소에 계속 서 있는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3) 지금 복음을 인하여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주 안에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다(참조, 서론 ㉠ 7).
- (4)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헬, 엔 퀴리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 (5)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主)를 생각하며 주와 동행할 때이다.
- (6) 다시 말해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설 때에만 굳게 설 수 있다(요15:6,7).

3. ㉠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는가? (2절)

- ㉠ (1) ‘유오디아’(Euodia)는 ‘성공적인 여행’이란 뜻을 지니며, ‘순두게’(Syntyche)는 ‘행운의 기회’라는 의미를 지닌다.
- (2) 전후 관계로 보아 3절에 기록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란 표현은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가리킨다.
- (3) 이렇게 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복음 사역에 힘썼던 여인들임을 알 수 있다.
- (4)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본절에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 두 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다투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 (5) 아울러 우리는 빌립보를 포함하는 고대 마케도니아 지방의 부인들이 다른 지방의 부인들과 달리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지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J.B.Lightfoot)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의 전도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다는 사실(행16:13-15)을 염두에 둘 때, 그들 두 여인의 다툼이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할 수 있다.
- (6) 따라서 바울은 그 분규(紛糾)가 해결되도록 그 여인들에게 서로 화목할 것을 권한 것이다.
- (7)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자못 크다. 여성도들은 수적(數的)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으며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 (8) 이와 같이 여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자칫하면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불화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여성도들은 본절에 나타난 바

울의 권면과 같이 주 안에서 한마음을 품으며 서로 사랑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요13:34,35).

4. ㉠ '나와 멩에를 같이한 자'는 누구인가? (3절)

㉠ (1) 본절의 '나와 멩에를 같이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 견해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쉬취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여기서 '쉬취고스'란 '멩에를 같이한 자' 또는 '동료'라는 의미이다(J. Müller, Hort, Moffatt)
- ② 디모데(Estius)
- ③ 에바브로디도(Lightfoot, Grotius)
- ④ 누가(W. Ramsay)
- ⑤ 빌립보 교회의 감독(Luther)
- ⑥ 루디아(Renan, Scott)
- ⑦ 유오디아나 순두게의 남편(Chrysostomus)
- ⑧ 실라(Bengel)

(2)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본절의 '나와 멩에를 같이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3) 그러나 우리는 본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했으며 또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라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 복음 사역(福音事役)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3절)

- ㉠ (1)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
- (2) 그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지만 그 이름이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바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헬, 비블로 조에스)에 기록되어 있다.
- (3)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主)를 위해 수고한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참조, 단12:1; 계3:5; 21:27).
- (4)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
- (5)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고 말씀하셨다.
- (6)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름보다도 훨씬 빛나는 영광을 지닌다(고후4:17,18). 따라서 오늘날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가장 기뻐해야 한다(참조, 히12:23).

6. ㉠ 본장에서 바울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첫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다.
- (2)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권고를 들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 (3)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절박한 형편에서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내었다(2:17).
- (4) 이처럼 그가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갈2:20).
- (5)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라도, 즉 잘못된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세상의 핍박을 받거나 죽

음의 위협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6)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난에 처하여 무감각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적으로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참조, 롬14:17).

7. **㉠** 본장에서 바울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두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5절)

㉠ (1) 그것은 ‘관용(寬容)하라’는 것이다.

(2) 여기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KJV, moderation).

(3) 특히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동료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참조, 마5:44).

(4)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관용의 태도로써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5)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날이 가까와 오는 것을 믿는 이상 타인에 대해 관용할 수밖에 없다(약5:7-9).

8. **㉠** 본장에서 바울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첫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6절)

㉠ (1)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2) 여기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나태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거나 초조해 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이다.

(3) 실제 기도할 때 걱정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법이다.

(4) 한편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과 문제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뿐이다(엡6:18).

(5)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헬, 유카리스티아스)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이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연유한다(참조, 롬8:28).

(6) 아뭏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가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일에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며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살전5:17).

9. **㉠** 바울은 기도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7절)

㉠ (1) 바울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다.

(2) 여기서 ‘지키시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루레인>은 원래 군사 용어로서 ‘파수한다’, ‘경계한다’는 의미이다(NIV, guard).

(3)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기도하는 신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군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과 좌절로부터 신자를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다.

(4) 한편 본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知覺)에 뛰어나다’(헬, 헤 휘페레쿠사 판

타 눈)고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임을 나타낸다(참조, 엡3:18-20).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和睦)하게 됨으로써 영혼의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요 14:27; 롬5:1).

10. ㉠ 8절에 기록된 바 성도가 나타내야 할 덕목들을 설명하라.

- ㉠ (1) 본절에는 성도들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여덟 가지 덕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 (2) 그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참되며’(헬, 알레테) : ‘허위’와 상반되는 이 덕목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롬 3:4)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 ② ‘경건하며’(헬, 섹나) :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 이 말(딤후3:8,11; 딤후2:2)은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다.
 - ③ ‘옳으며’(헬, 디카이다) :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이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④ ‘정결하며’(헬, 하그나) :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하는 말이다.
 - ⑤ ‘사랑할 만하며’(헬, 프루스필레) : 신약을 통털어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 ⑥ ‘칭찬할 만하며’(헬, 유페마) : 이 단어 역시 본절에만 나오며 그 의미는 ‘정중한’, ‘우아한’, ‘고상한’이다(RSV, gracious).
 - ⑦ ‘덕’(헬, 아레테) :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한다.
 - ⑧ ‘기림’(헬, 에파이노스) :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3) 바울은 이상과 같은 미덕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언제나 누구보다 탁월하게 사고(思考)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11. ㉠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본절의 ‘배우고’(헬, 에마테테)와 ‘받고’(헬, 파렐라베테)라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삶에 대해 교훈받은 사실을 강조한다.
- (2) 그리고 ‘듣고’(헬, 에쿠사테)와 ‘본’(헬, 에이데테)이란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관찰한 것을 강조한다.
- (3) 이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과 그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받은 것과, 그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것과 또 그의 생활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깨달은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4) 그런데 바울이 이같이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그가 나타낸 말과 행실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5)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 (6) 첫째, 교회의 교육자는 인격적으로 본(本)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인격적인 삶 그 자체는 피교육자가 배울 수 있는 산 대상이다.
- (7) 둘째, 성도들은 교역자가 권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약2:26).

12. **㉠** 바울을 도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10, 14-18절).

- ㉠** (1)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기도로써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다(참조, 고후11:8,9).
- (2)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원조한 것은 한 번만이 아니었다.
- (3) 그들은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행16:12-40) 마게 도냐를 떠날 때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15절),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다(16절).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2:25)를 통해 바울의 쓸 것을 보내 주었다(18절).
- (5)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이다.
- (6) 교회는 자신들이 쓰고 남은 것으로 선교할 것이 아니라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마28:18-20).

13. **㉠**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11, 17, 18절)

- ㉠** (1) 빌립보 교회는 과거에 여러 번 바울을 도왔으며 이제 바울이 로마의 옥에 투옥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때에도 그에게 재정적(財政的)인 도움을 주었다(참조, **㉠**12).
- (2)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10절)고 하였으며, 또 '잘하였도다'(14절)라고 하였다.
- (3)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도움에 대해 기뻐한 이유는(10절) 그가 궁핍할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11,12절).
- (4) 물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실에 대해 더욱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다(10,17,18절).
- (5) 이처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이에 대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진실되게 교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다(참조, 시133:1-3).

14. **㉠** 바울이 배운 참된 만족의 비결은 무엇인가? (11-13절)

- ㉠** (1) 복음을 인하여 로마의 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 준 선물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14,18절).
- (2)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그 선물 자체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참조, 딤후6:6-8).
- (3)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餽, 아우타르케스)할 줄 알았던 것이다(11절). 즉 그는 풍부한 환경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秘訣)을 터득하고 있었다(12절).
- (4) 그 비결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다(13절).
- (5) 그런데 우리는 참만족과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데 관련되는 바울의 이 비결이 스토아(Stoa) 철학자들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6)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자기 자신 속에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기를 추구하지만, 바울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얻기 때문이다(참조, 고후12:9,10;엡3:16,17;골1:11).
- (7)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요16:33).

- (8) 그러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요15:5).

15. **㉠**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 사도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다(10, 15, 16, 18절).
- (2)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그들로부터 선물받기를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11절).
- (3) 바울이 그들에게 구한 것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선물을 준비한 빌립보 성도들이 아름다운 영적(靈的) 열매를 맺는 일이었다(참조, 잠11:25).
- (4)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 (5) 하나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마련한 사람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4절).
- (6) 다른 하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의 주는 행위가 외식적(外飾的)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 자기의 주는 행위로 인해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마6:1; 눅11:41).

16. **㉠** 바울은 자기에게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18절)

- ㉠** (1)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기에게 보낸 선물(2:25-30)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祭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였다.
- (2) 여기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오스멘 유오디아스, 두시안 데크덴, 유아레스론 토 데오>는 문자적으로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란 뜻을 지닌다(KJV, an odour of a sweet smell, a sacrifice acceptable, well-pleasing to God).
- (3) 이와 같은 표현은 희생 제물의 타는 냄새가 하나님의 코를 향기롭게 한다는 구약 성경 특유의 신인 동형론적(神人同形論的)인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창8:21; 레1:9, 13, 17; 2:12).
- (4)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마련한 선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함은 그 선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과 같다.
- (5) 이같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물이 주의 종을 도움으로써 주의 사업을 더욱더 진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기 때문이다.
- (6)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본받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꺼이 도와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다(마25:40; 히13:16).

17. **㉠**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가?

- ㉠** (1) 바울은 본절에서 ‘그의’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에게 도움을 베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 베푼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갚아 주시리라는 것이다(참조, 잠11:25).
- (3)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바울의 이 확신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은 ‘쓸 것’(헬, 크레이만)이 부족한 형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쓸 것을 도운 것은(15,16,18절;2:25) 그들의 원조 행위가 바울 한 사람에게 대한 인간적인 동정(同情)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기인한 것임을 알려 준다.

- (5)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6) 다시 말해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만 경험되며,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만 허락된다(참조, 요15:5).

18. **㉠** 20절의 송영(頌榮)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20절의 송영은 본서신을 마무리짓는 송영이 아니다. 실제 본서신을 끝맺는 송영은 23절에야 나타난다.
- (2) 20절의 송영은 특별히 바울이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보호와 돌보심(19절)을 확신하고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 (3)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평상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참조, 시29:2; 사25:1).

19. **㉠**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1, 22절)

- ㉠** (1) 바울은 편지를 먼저 받아 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한다(21절).
- (2) 그 다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말한다.
- (3) 여기서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1:1;2:19-30) 그리고 1:14에 언급된 사람들 중 일부가 포함되는 듯하다.
- (4)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말한다(22절).
- (5) 22절의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은 로마에 있든지 혹은 그 외부에 있든지 또는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간에 로마 황제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6)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시위대(侍衛隊)에 속한 자도 있었는데(1:13) 이들은 네로 황제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7) 이처럼 바울이 특별히 이들을 언급한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빌립보 성도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은 로마 영토인 빌립보 출신이거나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 (8)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이 부분의 기록을 통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9)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서로의 신앙을 견고케 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2:42; 롬1:12).

본장의 요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